

3》 혜정박물관장 폭언으로 노조와 성명전



6》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③ 연구지원 제도



2014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및 부전공 신청 안내

접수기간 : 4월 13일(월)~4월 17일(금)  
접수장소 : 서울캠퍼스-소속대학 행정실(조기졸업),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부전공)  
국제캠퍼스-중앙도서관 1층 학사지원과(조기졸업),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부전공)  
신청대상 : 2014학년도 후기 졸업 기능자(2015년 8월) 졸업 기능자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조기졸업자에 한함)



‘본관놀이’의 모든 것

서울캠퍼스 본관 주변의 벚꽃이 모두 개화하면서, 야유(野遊)를 즐기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소위 ‘본관놀이’라 불리는 이 풍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관련기사 8면>

## Newsmaker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개발한  
김호철 교수 연구팀



## “키 작은 어린이들에게 도움 되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 최근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일명 ‘키 크는 신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김호철(본조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써 최초 인정받았다. 키 크는 신물질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HT04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호철 교수와 그 연구팀을 만나봤다.

### 4년 정도 섭취할 경우

### 4~5cm 더 클 것으로 기대

김호철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과급효과가 클 줄 몰랐다”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는 상태”라고 말했다. HT042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HT042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을 늘려, 성장을 돋는 물질이다. 때문에 성장판이 이미 닫힌 성인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성장호르몬 주사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철 교수 연구팀이 어린이 97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3개월간 이 물질을 섭취한 실험군이 2.25cm 자라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평균 3.3mm 더 자랐다. 약 17.2% 더 성장한 것이다. 연구팀 이동현 연구원은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추가 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정도 섭취할 경우 키가 4~5cm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내의 연구 공간도 부족했다. 다양한 약재를 실험해야 했던 만큼, 저장공간이 필요했지만 한의과대학 여건상 마땅치 않았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팀은 연구를 이어나갔고, 지난 7일 HT042를 토대로 한 성장식품까지 출시됐다. 앞으로 김 교수와 연구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과제 저신장 어린이를 위한 신약 개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교수는 “최근 키가 자신감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HT042를 통해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를 맞아야 해서 어린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에 HT042는 안전한 천연물로 적정섭취량을 넘어서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안전한’ 물질인 것도 확인됐다. 독성시험에서 흰 쥐에게 적정섭취량의 13배까지 먹였지만 문제가 없었다.

놀라운 성과지만, 개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이후 15년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한 끝에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몸에 좋다는 100여 종 이상의 각종 약재를 모두 실험해보았다”며 “수많은 실험 결과, 키 크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기간 연구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실험대상이었던 흰 쥐의 경우 작은 스트레스에도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만큼, 작은 환경까지도 점검해야 했다. 김영식 연구원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약을 먹이고, 외부요인을 차단해도 데이터를 확실히 도출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식 중이나 설날, 추석 가릴 것 없이 실험실을 향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학교 내의 연구 공간도 부족했다. 다양한 약재를 실험해야 했던 만큼, 저장공간이 필요했지만 한의과대학 여건상 마땅치 않았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팀은 연구를 이어나갔고, 지난 7일 HT042를 토대로 한 성장식품까지 출시됐다.

앞으로 김 교수와 연구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과제 저신장 어린이를 위한 신약 개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교수는 “최근 키가 자신감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HT042를 통해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우리학교와 부조화” … “적응할 시간 필요”

###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갑론을박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서울】 정문 옆 녹지공간을 활용해 건설 중인 ‘전면플라자 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가칭)’을 두고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온전한 색을 입힌 외형이 드러나면서 구성원의 평가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주 우리신문이 인터넷으로 전한 문화복지시설 기사를 본 구성원들도 댓글의 형태로 속속 의견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건물의 형태와 외벽의 색을 두고 가장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우리신문 등을 통해 건물의 쓰임새가 알려진 뒤부터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우리학교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외형과 ‘파격’이라고 할 만큼 강

### 정문 앞 건물을 보는 의견들

Good : 성냥갑 같은 건물 외형을 탈피한 모습이 신선

Good : 회색빛 일색이었던 캠퍼스 전경에 포인트가 되는 색

Bad : 지나치게 밝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Bad : 우리학교 특유의 건물양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Bad : 건물 외벽이 심하게 훈다

사를 통해 작년부터 문화복지시설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우리신문 역시 관련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성원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신문 등을 통해 건물의 쓰임새가 알려진 뒤부터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우리학교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외형과 ‘파격’이라고 할 만큼 강

렬한 칼라에 집중되고 있다. 구성원에 따라서는 ‘성냥갑 같은 건물 외형을 탈피한 모습이 신선’하다거나 ‘회색빛 일색이었던 캠퍼스 전경에 포인트가 되는 색’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리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좀더 많은 의견은 ‘너무 훈다’로 수렴된다.

대부분의 의견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지나치게 밝다”, “우리학교 특유의 건물양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5면으로 이어짐

않는다”는 ‘부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차라리 건물 외벽을 유리로 처리했다면 심하게 훈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외관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제캠퍼스는 공과대학관이 너무 고풍스럽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서울캠퍼스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 너무 현대적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흥미롭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주는 구성원도 있었다.

구성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이 건물의 설계자인 이현호(홍의대, 건축학) 교수는 “파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수십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캠퍼스 풍경과 다른 건축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사랑의 광장’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⑤)

오태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5년 4월은 잔인한 봄이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광화문 광장의 노란색 물결’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수몰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정상화된 것이 없다. ‘세월호의 광장’ 앞에서 정상적인 부채감에 젖은 국민들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날씨에도 불현듯 저절

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담한 고통의 눈물을 수시로 펼ぐ다. 피어나지 못한 채 수몰된 영혼들이 여전히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

‘광장=대중의 밀실’, ‘밀실=개인의 광장’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광장=대중의 밀실’, ‘밀실=개인의 광장’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다.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은 오늘도 노란 산수유와 개나리로, 붉은 진달래와 철쭉으로, 하얀 벚꽃과 목련으로 한반도의 곳곳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슬픈 봄이다.

‘광장’과 ‘실종’과 ‘사랑’이라는 열쇠어는 기실 1960년산이다. 55년 전 최인훈의 『광장』(1960)에서 그 표현들이 이미 분단의 짙은 너머를 상상하며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한반도의 문제를 상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새벽』지에 『광장』 원고를 게재하면서 “빛나는 사월이 가져온 광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자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광장’이 “운명을 만나는 자리”라고 재정의한다. 1960년 4.19 혁명이 열어놓은 ‘자유와 평등’의 해방감이 24세의 젊은 작가에게 ‘민주공화국의 보람’을 만끽하며, 운명처럼 『광장』이라는 기념비적 걸작을 탄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61년 판 서문에서 작가는 인간이 광장과 밀실을 함께 호흡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광장=대중의 밀실’, ‘밀실=개인의 광장’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특별기고

### 플랫폼(Platform)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7면

